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누가 더 세나…

연세대학교(푸른색 유니폼)와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 첫날인 지난 17일 강진군 종합운동장 럭비전용구장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중·고·대학·일반부 23개 팀이 27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박인비〉 〈유소연〉 〈최나연〉 〈박희영〉

한국낭자 브리티시 오픈 감각 조율

LPGA 마라톤 클래식 개막

박인비·박희영·유소연 등 출격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한국 군단'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의 전초전에서 10승 합작에 나선다.

1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장(파71·6428야드)에서 열리는 마라톤 클래식은 지난해 '제이미파 톨리도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대회다.

다음달 1일 막을 올리는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앞두고 샷 감각을 조율할 마지막 '실전'이다.

지난해에는 유소연이 앤절라 스탠퍼드(미국)를 7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0년 최나연, 2009년 이은정, 2007년 박세리, 2006년 김미현 등 한국 선수들이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맏언니' 박세리는 5차례(1998, 1999, 2001, 2003, 2007년)나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올 시즌 LPGA 투어 17개 대회만에 10승을 돌파,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2009년 역대 최다인 12승, 2010년 10승을 쌓은 한국 선수들은 2011년 3승에 그쳤으나, 지난해 9승에 이어 올해 이미 16개 대회에서 9승을 합작했다.

그 중심에는 세계랭킹 1위인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있다. 박인비는 올 시즌 3개의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등 무려 6승을 거둬 한국은 물론 세계 여자골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매뉴라이프 클래식에서 개인 통산 2승을 달성한 박희영(26·하나금융그룹)의 상승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외에 역대 우승자인 박세리(36·KDB금융그룹), 최나연(26·SK텔레콤),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아마추어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 등도 출전해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화정초 우승

송정동초 박성역 3연타석 홈런

화정초가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을 차지했다.

화정초는 지난 17일 본량 리틀야구장에서 열린 제 20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최종전에서 송정동초를 12-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제13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화정초 박지운은 8타수 7안타(타율 0.875), 5도루의 기록으로 타격상·최다안타상·최다도루상을 싹쓸이 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송정동초 박성역은 3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눈길을 끌었지만 아쉽게 팀은 패배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화정초와 2위 팀인 수창초는 오는 10월 공주에서 열리는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대회 시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 조병용(화정초) ▲우수투수상 : 정도웅(화정초) ▲감투상 : 박성역(송정동초), ▲타격상·최다도루상·최다안타상 : 박지운(화정초·8타수 7안타·도루 4개), ▲미기상 : 박성우(송정동초), ▲수훈상 : 양원빈(화정초) ▲지도상 : 정성면(화정초 야구부장) ▲감독상 : 유종열(화정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 전반기 결산

툭하면 뚫린 뒷문, 초반 질주 못 살렸다

앤서니 마무리 승부수 실패… 승률 0.529, 5위로 부진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된 화력·기동력 그나마 위안

〈앤서니〉

기대에서 실망으로 끝난 KIA의 전반기.

KIA 타이거즈가 17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2013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초반 거침없는 타격으로 선두권 질주를 했던 KIA는 불펜의 난조 속에 5위(36승2무32패·승률 0.529)로 반환점을 돌았다. 한화와의 전반기 마지막 2연전은 KIA의 숙제와 희망을 동시에 보여준 경기였다. 2연전을 통해 출범 두 번째 해를 맞는 '선동열 호'의 전반기를 돌아본다.

◇**지키지 못한 지키는 야구**= 전력 파악에 실패하며 4강 밖에서 첫 시즌을 보냈던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지키는 야구'를 언급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키는 야구'를 위해 선발 앤서니를 마무리로 돌리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얇은 불펜 층에 8회부터 일찍 투입돼야 했던 초보 마무리 앤서니는 4.50의 방어율로 4번의 결정적인 블론 세이브를 남기고 2군으로 내려갔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송은범 카드와 투수 교체의 엇박자까지 겹치면서 번번이 뒷심 대결에서 밀렸다. 4, 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9회 참사도 발생했다. 16일에도 1이닝을 지키지 못하면서 5시간28분의 혈투 속에 역전패를 당했다. 3-2로 앞선 8회, 박지훈이 먼저 투입됐다. 박지훈은 150㎞의 강속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로 탈삼진 두 개를 뽑아내는 등 13개의 공으로 1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박지훈이 9회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송은범의 마무리 테스트가 다시 진행됐다. 볼넷에 이어 고동진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경기는 3-8 역전패로 끝났다.

17일에도 송은범은 1실점을 더하면서 시즌 방어율이 6.84로 뛰어올랐다. 동계훈련이 부족했던 송은범에게는 악몽 같은 전반기. '마운드'를 중심으로 한 야구를 강조한 선감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풀지 못한 불펜 고민 속에 오히려 지키는 야구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타선의 전략과 집중력 부족**= 초반 선두 질주에는 방망이가 있었다. 타자들은 거침없는 타격으로 선발진 부상과 불펜 난조로 생긴 마운드의 약점을 채워줬다. 하지만 타격 슬럼프 속 겹친 불펜의 부진과 타선의 전략 부재로 KIA의 추락이 계속됐다.

1-2로 뒤진 16일 2회말, 발 빠른 김선빈이 선두타자로 나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상대는 들쑥날쑥한 제구가 약점인 바티스타. 역시 발 빠른 안치홍이 타석에 섰지만 예상대로 KIA의 공격 패턴인 번트 작전이 나왔다. KIA는 진루와 아웃카운트를 바꿨지만 바티스타의 흔들리는 제구에 김상훈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입맛을 다셨다. 이후 윤완주의 내야안타로 1사 만루. 이용규가 삼진, 신종길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상대 벤치의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번트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단순한 번트 일색의 벤치 전략과 기회마다 힘이 들어가는 타자들의 어깨에 KIA 야구의 재미도 떨어졌고, 순위도 떨어졌다.

정리되지 않은 마운드를 생각하면 "방망이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사령탑의 얘기와 달리 화끈하고 허를 찌르는 공격이 KIA의 위기 탈출구가 될 전망이다.

◇**에이스 윤석민의 귀환**= 윤석민의 길어진 부진은 KIA 마운드의 고민이었다. 5월4일 넥센전에서 시즌을 시작한 윤석민은 한 차례 더 불펜에서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선발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8번의 선발 등판에서 4.53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기록했다. 6.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1자책), 6이닝 2실점 경기가 있었지만 불펜 난조와 타선의 지원 부족으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직구가 140㎞ 초반에 머물렀고, 명품 고속 슬라이더도 140㎞를 넘지 못하면서 힘들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윤석민이 승리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 윤석민은 17일 6이닝 4피안타 2사사구 7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선발승을 기록했다. 직구 스피드는 149㎞까지 끌어올렸고, 슬라이더도 142㎞까지 나왔다. 뒤늦게 감을 잡은 윤석민은 후반기 순위 싸움에 큰 전력이 될 전망이다.

◇**화력·기동력 업그레이드**= LG·넥센의 신바람 질주에는 새 얼굴과 베테랑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격 조합과 내부경쟁이 한 몫을 했다. KIA에겐 새 전력 발굴과 베테랑의 입지와 역할이 아쉽지만 지난해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화력과 기동력은 그나마의 위안이다.

4번 타자 나지완과 해결사 본능을 깨운 이범호를 중심으로 한방이라는 주요 무기가 더해졌다.

지난 시즌 KIA의 팀홈런은 54개에 불과했지만 58경기를 남겨둔 올 시즌 52개에 이른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홈런이 전반기를 장식했다. 김주찬을 중심으로 한 기동력도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93개의 도루로 지난해(132개)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공격 지수는 늘리고 실책은 줄였다. 지난해 88개의 실수가 나왔지만 올 시즌에는 33개로 최소실책 1위를 달리고 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골든글러브 출신다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안치홍과 재치 만점의 김선빈 등 탄탄한 수비진은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

KIA의 전반기는 '비슷한 실패'였다. 반복된 실수와 실패로 끝난 전반기지만 1위 삼성부터 6위 롯데까지 6.5게임차의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는 만큼 후반기 선두권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시즌 KIA는 9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식적으로 4강 싸움을 포기했다. 하지만 롯데의 연패라는 돌발 변수에 시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순위 싸움을 하며 씁쓸한 기억을 남겼다. 팬들이 그리는 2013시즌은 '호랑이 본능'으로 포기하지 않는, 후회 없는 시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